

韓國建築思想研究 ②

金 鴻 植

弘 益 大 學 大 學 院

第 3 項 土 俗 的 事 象

(1) 地 理

地理에 대한 사상으로 家屋의 형태나 그 위치가 지배적 制約을 받았다. 짓던 집을 헐어 버리고 좋다고 하는 자리에 다시 짓기도 한 예가 있으며, 吉地라 하여 남의 집을 취하여 자기가 산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이생의 집을 그렇게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祖先崇拜 思想과 결합하여, 陽宅보다 陰居를 중요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지금도 蔓延된 惡習이다.

이러한 폐단은, 國土計劃과 都市計劃의 원리를 좀더 간명하게 하려 했던 道誥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봉건 영주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삼음으로써 현실의 바탕을 떠나서 觀念적 유희—권력 쟁취를 위한—로 타락하여 道誥의 秘記는 더욱 象徵적이 되고 더욱 모호하게 되었다.

여기 모호한 것의 예를 하나 든다.

山林經濟 應砂條에

「凡宅之左右前의 砂, 尖秀端圓하면 科第하고, 巽辛히 卓筆을

見하면 文貴하고, 推甲屯軍은 武貴하고, 頭側頂斜는 盜賊하고, 孤曜는 僧道고, 燥火는 瘟疫火災하고, 掃蕩은 爭訟하고…(略)… 天岡은 作賊兵死하니…(略)」

筆者는 漢文에 문외한이라 이 글을 해석하기 힘들다 하지만, 실사 해석을 하였다 하여도, 실지 地形에 이르러 「孤曜, 燥火, 掃蕩, 天岡의 砂」를 分辨할 수 있을런지 극히 의심스럽다. 그것은 반드시 百口百言을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이렇게 모호한 地理 사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痲痺할 수 있었던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권력 쟁취를 위한 봉건 귀족의 「이데올로기」化하여 觀念論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實學派에 이르러 現實論으로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한다.

둘째, 土俗信仰과 결합하여 백성의 고뇌를 사회 外的要因으로 돌리는 마취제—봉건적 「이데올로기」—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봉건시대의 시대적 한계성 때문이다.

(2) 警 告 性

山林經濟의 대부분의 문장중 끝 단어는 「吉」「不吉」「凶」「火

凶」또는 「忌」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好」「莫好」와 同義語로 사용하여 다분히 비합리적 생각을 警告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황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화가 잘 안되어 건강에 해롭다」는 합리적 생각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지만, 사람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神託에 의탁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불합리한 행위를 규제하여 합리적 건축을 하게는 하였지만, 理論的 뒷받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의 자연스러운 理論的 발전의 기회를 잃었다.

다음에 무엇을 경고하기 위해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然而凡家舍는 口의 ㅅ을 開하야 造하나니 多하야도 二十四五間에 不過할지니, 最大함을 扃함은…(略)…然而 又 子孫이 能護할배 아니니라 故曰 大屋은 戶가 ㅅ하고, 小舍는 人吉이라 하니라」 한 것은 쓸모없이 집만 큰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朝鮮時代의 生産能力이—封建的 生産力—최종 소비재인 住宅에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이다. 이 필요 이상의 기준을 25
간이라 생각하였다.

또, 上記條에

「新宅에 兩頭 接함과 如한 小
屋은 不吉함」이라고 한 것은
최종의 소비재이자 최초의 생산
재인 住宅의 最小限의 限界를 경
고하는 말이다.

이렇게 住居의 최대한의 한계
와 최소한의 한계를 말하여 비합
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인간의 생리적 최소 한도를 기준
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그 理論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기회
를 잃었다.

「堂이 只 一座됨을 孤陽이라
爲名하니 不吉하고 屋은 東을
欠함이 無케하라. 或은 北을 欠
하고, 或은 南을 欠하고, 或은 西
를 欠함도 亦 不吉하고…」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
다. 즉, 平面을 計劃함에 있어,
건물 상호간의 동선 관계를 생각
하여 한 건물이 너무 멀리 떨어
져 있는 것을 경고하여 均齊한
평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토
속 사상과 결부시켜, 상징적인 언
어를 사용함으로써 명확한 사상
을 모호하게 한 점이 있다.

옛부터 우리는 部材로 쓰는 나
무를 꺼꾸로 씀을 대단히 싫어하
였다. 이것은 力學的 이유로 그
러하였는데 「凡屋을 造할 時에,
錯誤하여 倒木을 用하면 人으로
하여금 顛覆케 하나니 釜頭로써
擊하여 祝日, 倒好倒好 此宅에
住宅에 住한 者는 世世温飽하여
云한 則 吉함」이라고 한 것은
설혹 倒木을 썼다 하더라도 사람
의 幸 不幸을 좌우할 만큼 커다
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 하겠다.

「女子는 竈를 祭함이 不可하니,
不祥也요 犬을 用하여 竈를 祀하
면 凶敗함 竈를 作함에 西南으로
向함은 吉하고, 東北은 凶함」

옛부터 우리나라 民家에서는
竈神과 廁神을 대단히 숭배하였
다.

이것은 住宅에서 가장 더러워
질 수 있는 곳에 神의 존재를 인
식시켜 청결을 강조하는 위생적
관념에서 나온듯 하다.

女子가 祭祀할 수 없다는 것은
儒敎의이고, 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佛敎의 영향이다. 이렇게 高
級宗敎가 土俗化하여 民家의 敎
訓的 역할을 한다.

한편, 부엌의 방향을 西南으로
向하라고 못을 박은 것은 집 대
문을 吉方인 西南으로 할 경우
동선관계도 고려된 듯 하다. 또
조명시설이 불충분한 시절에 생
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녁 설거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한듯도 하고,
광선을 받을 수 있게하여 물을
많이 쓰는 부엌을 위생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듯도 하다.

이것은 民家에 절대적 영향력
을 가졌기 때문에 대지의 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이것에 억매어 動
線의 非合理性을 가져올 수 있었
으리라 추측된다.

「宅戶 二三門이 相對함은 不吉
하며……」라 하여 大門은 다른
집의 大門과 「지그재그」로 놓여
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

「凡 牆籬는 造屋 前에 爲先함
을 切忌하나니……」
하여 工事의 순서에 있어 主建物
工事를 먼저하고 其他 附帶施設
공사를 맨 뒤에 하여야 된다고
말한다.

「木을 伐함에 吉日을 擇한……
…」

이렇게 나무를 베거나, 工事를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변소를 짓
는데도 擇日한다. 이것은 建築
행위가 계절과 기후 또는 날씨에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
하고 있다.

합리적인 건축행위를 神託에
의지한 것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
위를 규제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
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을 낳
았다.

첫째,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
는 고정된 생각 때문에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예외일 경우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理論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외부에서 도입된 근
대정신과의 공통점을 찾지 못하
고, 건축사상의 自生的 기초를
잃게 되었다.

(3) 呪術的 思想

건축행위를 神의 뜻이라 생각
하여 神의 뜻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나 神의 노여움을 풀기 위
하여 巫俗的이고 呪術的인 행위
를 하게 된다.

「地上의 浮土를 去하며 生地에
就하여 其面을 平正히 하고 此를
掘하기 方深一尺二寸, 土를 粉으
로 하여 此를 羅하고 又 復原圈
에 納하고 此를 按抑하지 勿하며
明早에 看하여, 土 凹한 則 凶하
고 土 噴한 則 吉하니라」 이것
이 흙의 地耐力을 알아 보는 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보다
깊은 考究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
나 이러한 呪術的 행위로 말미암
아 地耐力이라는 명확한 관념이
自然의 神秘스러운 것과 결합하
여 모호한 것이 되었다.

「井을 鑿하는 古法은 爲先盆數十을 貯하여 鑿하려 하는 處에 置하고, 夜間에 盆中을 視하여, 大星이 衆星에 異한 者 一有하면 必 甘泉을 得하니, 此를 試함에 屢屢有驗한지라……」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의 効驗은 이해하기 힘들다. 自然의 신비스러움을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풀려고 한 것은 封建時代 科學의 限界이었다.

「凡 新廁을 置하면 卽 舊廁을 廢除하고 舊廁 內의 糞도 亦是此를 盡除하나니 此를 除할 時에 水로써 廁中에 充滿케 한 後 廁을 除한다. 莫言하고 只 水를 除한다 言함」 이렇게 더러운 것을 치울 때도 깨끗한 말과 이에 따르는 깨끗한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房을 起하고 完正한 日의 祭式에는 香燭 酒醴 並히 淨水一椀 楊柳一枝 或은 青菜一槃을 神前에 置하고, 天地家神을 拜하여 祭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있어,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히 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가 儀式化하였다.

「凡屋을 造할 時는 主人의 喪所에 登함을 忌함(俗法에 上染前此를 忌하니라)」

이것은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 이상한 習俗으로 까지 고정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造屋의 時에 銀片으로써 柱의 眼中에 納하면 富를 致한다 함」

또는,

「秘密히 富家의 地下土를 取來하여, 淨水를 用하여 大門上에 泥塗하면 財旺하고, 亦富家を 害치 아니하며, 或은 牛糞을 取하여 井의 土에 埋하고 牛骨을 南

方에 埋하면 吉함」

이것은 사람의 希求하는 바를 사회 外的 요소에서 찾으려 했던 封建時代의 인습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呪述의 사상은 建築을 하는데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도가 지나쳐 사람의 무능력을 神의 힘에 의지해 보려 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神의 세계—中世 암흑 세계—에서 오랫동안 헤메게 하였다.

第4項 小 結

封建의 건축사상은 實學의 草創期까지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건축사상으로, 발전기 융성기를 거치면서 우리 建築 史上 異彩를 띠는 近代指向의 건축사상으로 전환한다. 本節에서는 近代指向의 반대 급부로서의 봉건적 건축사상은 다루지 않았고, 다만 非實驗的인 점과 土俗的인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다음에 그 설명의 대략을 요약한다.

大門이 직접 길에 面하여 있음을 싫어하고, 막힌 골목을 좋아 하였으니, 이것은 封建의 자급자족 시대의 은둔사상이다.

② 인간에게 힘겨운 機能을 超人間的인 힘에 의존하려고 한다.

③ 祖先의 경험을 존중하던 생각은 건축에 있어 復古의 건축사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儒敎사상과 결합하여 事大思想—中國의 건축 制度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체의 고유성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④ 實學派의 著書도 非實驗的인 주장과 문헌의 집성과 열거에 끝난 것 같은 약점을 지녔었다.

⑤ 地理에 대한 사상으로 家屋의 형태나 위치가 지배적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⑥ 어떠한 警告的 요소를 미신과 결부시켜 사람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토록 하였다. 이것은 社會內的 모순을 社會外的 모순으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例를 들면, 적은 집이 좋다. 平面的 動線을 생각하라. 部材를 쓸 때 마구리가 땅에 향하도록 하라. 집 대문이 다른 집 대문과 마주봄은 좋지 않다. 담장은 집을 짓고나서 만들라. 모든 건축행위는 계절, 기후, 날씨와 무척 관계가 깊다. 筭의 말을 토속신앙과 결합시키므로서 近代의 合理사상과 마찰을 이르고 따라서 傳統 思想으로 발전될 수 있는 自生的 기회를 잃고 말았다.

⑦ 사람이 신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무속신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神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呪述的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은 自然의 신비스러움을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풀려고 하는 封建時代 科學의 한계이었다.

이러한 봉건적 건축사상은 주로 「山林經濟」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것은 實學의 조창기 작품으로, 實學의 발전기 내지는 융성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사상은 차츰 사라진다.

熱河日記 序에 土俗的 건축사상 중 경교적 요소를 寓言이라 표현하고 주술적 요소를 弔詭(적괴—權變)이라 표현하여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그것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면서 합리적 생각 또는 事實에 바탕을 둔 생각을 대단 칭찬하였다. 이것은 封建的 건축사상을 기초부

터 혼드는 중요한 近代指向의 사상이나 이렇게 봉건적 건축사상은 근대지향적 건축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다음에 봉건적 건축사상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한다.

첫째, 「山林經濟」의 저자 洪萬選은 匠人이 아니고 儒學者이기 때문에 다분히 중국적 요소가 많고 우리의 것은 俗法이라 하여 따로 말하고 있으니 이中 어떤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둘째, 實學派의 저서도 다분히 봉건적 요소를 內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과연 社會思想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면 實學派 자신의 限界性 때문에 그러한가.

셋째, 봉건적 건축사상의 어떠한 요소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다. 봉건적 건축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封建 生産力의 한계성을 대변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封建時代의 生産力으로는 건축행위가 어려운 것이었고, 때문에 자주 神託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第2節 民族的 건축사상

第1項 小 序

民族的 건축사상은 民族 意識을 바탕으로 민족의 사회적 이익과 결부되는 건축사상이다. 이것은,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匠人 또는 건축가-이 행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축행위 또는 건축사상이 민족의 사회적 이익과 결부되어, 민족의 자립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였거나 의식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족적 건축사상은 일정 지역의 自然과 인간의 生産力과의 관계에서 生成한다. 인간의 生産力이 可變의인 것이기에 민족적 건축 사상 또한 성장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實學의 민족적 건축사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民族宗教의 사상①

민족의 종교는 그 민족의 우주관에서 연유하였다. 이러한 민족 종교는 민족의 모든 행동거지를 지배하였고, 건축 또한 이러한 종교 사상에 순응하려 한다. 따라서 각각 다른 민족이 가진 다른 종교는 각각 독특한 건축사상 즉 민족종교적 사상을 낳는다.

둘째, 風水地理 사상

우리나라 宗教思想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高級 宗教 思想을 도입하면, 한마디로 陰陽五行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위에 자연에 표현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地理說이다.

건축이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건축에 地理說이 도입되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風水說이 도입되어, 집터를 잡는 것(卜居)과 집(陽宅)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風水地理 사상이 형성되었다.

셋째, 傳統的 건축사상

민족종교적 건축사상과 風水地

理 사상에 바탕을 두고, 건축 조형의 세부를 결정하는 건축사상이다. 이것은 한국 건축의 몇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하였다. 茶山은 우리것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고급건축에 이를 도입함으로써 傳統的 사상의 신경지를 열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상을 「擇里志」와 「山林經濟」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자.

第2項 民族宗教의 思想

민족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던 民族宗教 思想은 建築에 있어서도 건축사상의 根幹을 이루었다.

종교는 人間이 자연과 사회에의 依存度가 심할 때, 그것을 인간 이상의 支配力을 가진 人格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반면에 人類의 자연과 사회에의 依存性이 약하게 되고 또는 그 관련의 科學的 認識이 발달함에 따라 종교는 衰微하게 된다.

그렇지만 朝鮮 後期까지는 民族宗教는 건축사상을 좌우하고 있었고 또는 전통적인 습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民族宗教 思想이 建築思想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1) 太陽 崇拜 사상

우리나라 原始的 宗教는 太陽 崇拜이었다.

이것은 高級 宗教의 세파 속에서도, 꾸준히 고급종교의 교리와 타협해 가면서 건축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람은 太陽의 아들로써 陽明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생각과 건축은 높고, 넓고, 밝고, 명랑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권위건축에서도 너무 크고 화려함을 싫어하고, 밝고 명랑하며, 깨끗하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또한 住居를 청결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변소와 부엌은 住居중 가장 청결을 요하는 곳이므로 높고, 넓고 명랑할 것을 특히 강조한다.

두째,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건축을 東方을 향해 짓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儒敎思想과 함께 流入된 중국의 南向과 마찬가지로 일으키게 되었다.

朝鮮 全期를 걸쳐서 昌慶宮은 坐向 문제의 초점이었다. 成宗은 임금(人君)은 반드시 南向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으나, 昌慶宮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므로 이것은 東向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하였다. 임진란 후 昌慶宮을 재건할 때도 坐向 문제로 半年間이나 공사가 지연되었다. 術官 李壹恣는 南向이 마땅하다 하고, 대부분의 術官은 東向이吉하므로 임진란과 같이 東向하자고 한다. 필경 전과같이 太陽을 향하여 築造하였다.

이렇게 원래 東쪽으로 向하던 경향이 儒敎의 南向의 영향을 받아 점점 東에서 南으로 變해 갔다.

다만 중국의 반드시 南向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東과 南의 坐向과 그 절충인 東南 방향 중 地理 思想에 맞추어 吉한 방향을 택하였다.

(2) 自然 숭배 사상

日月星辰이 빛나는 하늘과 雨雷와 風雪이 조성되는 자연 현상에서 자연의 힘이 무한함과 인간의 힘이 미력함을 느끼고 自然을 숭배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住居의 形式에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집을 짓되 自然에 따라 짓지 자연에 어떤 作爲를 강요하기 위하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이 自然景觀의 하나의 요소로서 첨가되는 정도이었다.

韓國建築의 특징인, 無作爲의 作爲, 尺度에 그렇게 정밀하지 않는 소탈한 생각 平面의 多樣한 변화, 단순하고 簡朴한 平面에 한 곳 力點을 두려는 강력한 意志 등은 이러한 思想의 所産이었다.

두째, 종교적 敬虔性이다.

건축을 天作이라 하여, 天工(自然 속에 있는 微妙함)에 순응하여 使用價值를 가진 建築物을 만들고 사람의 기술은 오직 天工(造化의 功)의 律法에 따를 뿐이라는 생각이다.

「既이 吉居를卜하면 則 宜當 屋宇를 可建이니 吉日을 擇하고 良材를 擇하고 法에 의하여 起工 할지니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있어 天工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造作에 있어 조금도 法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韓國建築의 停滯性으로 誤認 받기도 하였다.

(3) 多神 사상

자연중의 구체적인 하나 — 큰 나무, 큰 돌 등 — 를 숭배하던 것이 多神사상으로 土俗化하였다 이것이 후에 仏敎의 多神 사상과 결합하여 朝鮮後期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多神 사상은 건축 細部의 각각 다른 성격을 究明하여 각각 다른 神으로써 호칭하게 된다. 예를 들면, 廁神은 廁中 四壁上에 붙어 있으니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는 것은, 변소의 성격을 神格化하여 宗教化 함으로써 사람의 道德 以前의 行動을 規律化하려고 하였다.

(4) 하느님 사상

자연 숭배 사상이 임금의(部族 國家 時代) 祭天사상으로 진전하였고 이것이 祖先 崇拜 사상과 결부하여 天祖一如의 종교적 精靈思想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다음과 같은 건축 사상을 낳았다.

첫째, 하느님의 獨生子인 임금은 萬民의 아버지로서 千百姓의 명예가 임금에 있다는 자기 合理化의 사상이다. 이것은 宮室을 모든 건축의 本位로 삼게 하였다.

두째, 이렇게 하늘의 上帝天과 地上의 임금을 一体로 봄으로써 특별히 宗教建築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형태의 건물에 鎮座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東洋建築의 특징으로 굳어졌다.

세째, 하늘은 하나의 律法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不變의 뜻을 匠人들은 좇으려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技法이 오래 동안

변하지 않도록 하는 精神的 지수가 되었다.

않아 마주 보는 窓(對窓)을 널려 거든 반드시 마주 보는 窓을 한 쌍이라 한다. (一雙一雙)

(5) 天文 五行 사상

儒敎의 三天思想에서 유래하는 天文思想과 仏敎의 循還論的 영향에서 이루어진 五行思想과의 결합에서 성립한다.

天文五行思想은 다음과 같은 건축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건축의 배치에 있어 하늘의 形狀-五星座-즉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하려 하였다. 五星座位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만 周邉要素로 남았지만 王宮 건축 배치 形式의 기본이었으며, 仏寺伽藍 건축 배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둘째, 건축 기법에 있어서 홀수를 좋아한다. 집의 間數를 一間이니 三間이니 반드시 홀수를 사용하라, 하고 기둥의 尺數나 서까래 수에 있어서도 홀수로 하라 한다. 兩戶 兩壁을 좋아하지

않아, 風水地理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民族宗教的 사상은 임진란 후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선다. 이것은 萬民의 아버지인 임금의 萬民을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서, 임금이 하느님과 一體가 아니라는 自覺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가치관은 급속히 무너지고, 임금 중심의 생각에서 백성 중심의 생각-民體思想-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迷神의 信仰이 판을 치고, 한편으로 원시적 유교예로의 복고적 사상과, 西敎·東學 등 精神的 지주를 잃고 방황한다. 따라서 건축사상도 전환기에 접어 든 것이고, 앞에 든 民族宗教的 사상도 변화해 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精神的 바탕에는 이러한 要素가 깔려 있음을 看過치 못할 것이다.